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인원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1월 7일 월요일 (음 10월 7일) 제167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이것이 나라인가?”... 성난 민심, 질서유지하며 밤 늦게까지 도심 촛불 행진

“박근혜 퇴진 · 최순실 처벌 · 새누리 해체”



1. 지난 5일 밤 전주시 오거리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전북도민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수많은 시민들이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고 행진을 하고 있다.
2. 같은 날 촛불 행진에 앞서 도민총궐기에 참여한 시민들이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전주 오거리광장서 '도민 총궐기' 집회 열려
늦은 밤까지 질서유지하며 풍남문까지 행진
시민들 '정권 퇴진' 등 구호 외치며 촛불 높게 들어

박근혜 정권 퇴진과 최순실의 엄중한 처벌을 부르짖는 3,000개의 촛불이 뜨겁게 타올랐다. <관련기사 2면>
지난 5일 오후 5시 전주 오거리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제1회 전북도민총궐기 촛불집회'가 열렸다. 할아버지 손을 잡고 나온 8살의 소녀부터 백발이 휘황한 80대의 노인까지 박근혜 퇴진을 적은 붉은 피켓을 들고 한마음으로 박근혜의 하야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집회의 시작은 도내의 국악 전문인들이 나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비교하는 관소리 '그네가'를 소리쳐 불렀다. 도민들은 '그네가'의 중간중간마다 힘껏 추임새를 넣으며 호응했다. 친구들의 손을 잡고 광장에 나온 김은혜(15·서신중)양은 "어린 우리의 눈으로 봐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게 보인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못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책임지는 어른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화중에서 지업사를 운영하는 송진택(51)씨는 "호남의 지지율이 0%가 나왔다. 대통령이라는 한지역에서 0%

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욕심부리는 모습에 아연실색했다"며 분노를 전했다. 날이 어두어지자 도민들은 촛불을 들고 오거리광장에서 풍남문광장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행진이 시작되자 근처에서 업무를 보던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경적시위와 버스 장권퇴진 피켓 부착 등 이번시대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전주 시내버스기사들은 경적을 울리며 나아가는 도민들을 열렬히 응원했다. 차로 이동하던 시민들 역시 창문을 내리고 엄지손을 차켜하며 시위대와 하나된 모습을 보였다. 풍남문에 도착한 집회 참가자들은 밤 늦게까지 '박근혜는 퇴진하라', '새누리당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촛불을 높게 쳐들었다. 한편, 전북도민들은 19일 2차 전북도민총궐기를 통해 박근혜 퇴진운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전북현대, K리그 2위에 그쳐

전북현대가 아쉽게도 FC서울을 이기지 못해 K리그 2위에 그쳤다. 전북현대는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최종 38라운드에서 후반에 타진 FC서울의 박주영의 결승골로 인해 1-0으로 패배했다. 전북은 지난 2013년에 있었던 심판 매수에 따른 징계로 승점 9가 삭감된 탓에 개막 33경기 무패행진의 기록을 세우고도 마지막에 웃지 못했다. 전북현대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를 통해 올 시즌 무관의 아쉬움을 털어야 한다. 19일과 26일 전북은 알아인(아랍에미리트)과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치른다. 이날 3만3706명이 전주월드컵경기장에 찾아 전북은 창단 처음으로 시즌 40만 관중(43만1912명) 돌파를 기록했지만 안방에서 서울의 우승 잔치를 지켜봐야 했다. /김민근 기자

내년 바다의 날은 군산서

도, 기념식 유치... 내년 5월 31일 열려

전북도가 '2017 바다의 날 기념식'을 유치했다. 지난 4일 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이날 내년 바다의 날 기념식을 군산에서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바다의 날 기념식은 '해양 르네상스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내년 5월31일 군산(새만금)에서 열리게 된다. 기념식과 함께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와 한국어어업기술학회 춘계 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도 펼쳐지게 된다. 바다의 날은 바다와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해양 사상을 고취하고,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현 주수

와 미래 전망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1996년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그동안 전북에서는 개최된 적이 없었다. 도 관계자는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를 계기로 해양수산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책에 반영하는 등 미래산업인 해양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 매일 INDEX

4면 나라슈퍼 3인조 무죄... 검찰 항소 포기

청소년이 아름다워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제16회 국무총리배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도아리 경진대회

KOREA YOUTH CLUB COMPETITION

11월 12일 전북대학교

- ▶ 주최: 여성가족부, 전북대학교
- ▶ 주관: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전주매일신문, JTV 전주방송
- ▶ 후원: 교육부, 여성가족부, 광역시·도 지자체 및 교육청 등
- ▶ 참가대상: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교 및 청소년시설 청소년동아리
- ▶ 참가비: 무료

2009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전북대학교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사)한국청소년동아리전라북도연맹 사)한국청소년동아리전주시연맹 JTV 전주방송 전주매일신문